

광산구 주정차 단속 CCTV 탄력 운영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달 시범운영 후 5월 시행

광산구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의 단속을 완화해 주민의 야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상점가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충정역 인근 CCTV를 제외한 광산구 전역의 일반구역에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기존처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산구는 지난 1일부터 CCTV 단속 시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서구,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디지털 환경 대응 시 활용 및 범죄예방 교육 진행



광주시 서구는 9일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법과 함께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돌봄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생성형 AI 활용법 강의는 돌봄 업무에 생성형 AI 기술 적용법, 'ChatGPT' 활용법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외 아동 권리 교육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괴롭힘 등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위협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조선주 기자

'복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해요

7월까지...광주 자치구 최초 지역화폐가맹점 집중 모집



복구가 '복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복구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광주 자치구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오는 9월 100억 원 규모로 유통될 예정이다.

상품권 발행에 앞서 발행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가맹점을 모집한다.

이번 가맹점 모집은 복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복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순천경찰, 대선 '수사상황실 현판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24시간 단속체제



순천경찰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또한 서장 이하 각 과장 및 수사상황실 전담 요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경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에 대해 선거 공

정성을 크게 집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 때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업무 지침을 잘 숙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조선의 기자

'6·3 대선' 선거사범 수사·단속 체제로

광주·전남경찰, 관사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선거범죄 엄정 단속

광주·전남경찰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과 전담팀을 꾸렸다.

광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광주청과 관내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도 전남청과 각 산하 경찰관서 22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을 설치, 수사전담팀 운영에 나섰다. 광주·전남청은 촉박한 선거일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고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선거범죄에 대비한다.

지방청 별로 꾸린 수사 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정 단속한다.

실제 선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한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또는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다.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처하겠다. 시도민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신고 또는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교육청, 중증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반사업체 직업훈련 참가자 모집...현장업무 체험

광주시교육청이 중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2025 광주형 장애학생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이 일반사업체에서 2~3개월간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받은 후 취업과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학생은 특수학교(급) 졸업예정자,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 등 중

증 장애학생이다. 시교육청은 5월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재활 서비스 및 전문인력(훈련지원인) 직무지원 등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계획 등을 소개했다.

/조선주 기자

광양항 15m 향유고래, 드디어 먼바다로 떠나

발견 수일만에 느리게 먼바다 향하는 모습 포착



9일 오전 광양항 인근 해역을 맴돌던 15m 향유고래가 서서히 먼바다로 향하고 있다.

광양항에 들어와 얕은 수심에서 수일째 맴돌던 15m 길이의 향유고래가 먼바다 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께 여수시 낙포동 인근 30m 수심의 바다에서 남해 쪽으로 느리게 움직이며 이동 중인 향유고래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 고래는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광양항 연안 저수심에서 작업 중인 어선에 의해 발견된 후 어수시 울출면 송도와 대륙도 인근 저수심과 묘도 인근 저수심에서 관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고래를 먼바다로 유도하기도 했다.

여수해양경찰서 저수심을 맴돌던 고래

/김 호기자

한빛원전 5호기 정비 중 비상발전기 기동...'안전 이상 없어'

한빛원전 5호기에서 저전압 발생으로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했으나 발전소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9일 오전 8시54분께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5호기(가압경수로형·

1000MW)의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했다고 밝혔다.

한빛5호기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제15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이 중단됐다.

하지만 발전소 내 보조변압기 정비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저전압이 발

생해 비상 디젤발전기 자동 기동 등을 통해 즉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전력공급 계통이 다중화돼 있어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대기 중인 설비를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영광=서종민 기자

목포해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유·도선 집중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해양사고 대비·대응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및 선착장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방, 지자체 및 각 분야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유·도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선령 20년을 초과한 5톤 이상의 선박 중 최근 3년간 사고 이력이 있는 유·도선과 승선정원이 200인 이상인 유선 및 차량적재가 가능한 도선 가운데 최근 3년간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력이 있는 선박으로 안전 점검은 관내 유·도선 11척과 선착장 16개소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전남교육청, 고1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전남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1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와 진학 설계에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이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고등학교 3학년, 9월 중학교 2·3학년, 12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도 진행할 계획이다.

간판 없는 사무실에 도박게임장 '사흘간 1억원 오갔다'

가상화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망을 피해 읍지에서 운영하다 경찰에 털미를 잡혔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한 상가 사무실 2층에 사행성 게임장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도로변에서 볼 때는 여느 평범한 사무실 같을 뿐이었다.

유리에는 짙은 선명 시트지가 붙은 데다 게임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간판도 걸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오락실 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A씨는 게임장 용도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보통신업종으로 신고, 경찰 단속을 피했다.

손님들은 A씨와 지인 등 곳곳에서 게임장 개장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손님들은 게임을 통해 돈을 따거나 잃었다. 이 게임은 시중에 무료 배포된 모바일 게임을 인터넷 유료로 임의 변경한 것이었다.

이들은 입구에 세워진 키오스크에 5만원을 낸 뒤 자리를 배정받는다.

가상화폐(코인)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만든 뒤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에서 이긴 돈은 가상화폐로 바뀐다.

가상화폐는 1만 원부터 10%수요를 제외하고 자신의 계좌로 현금 이체할 수 있었다.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간편한 환전 시스템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손님을 불러 모았다.

개점 사흘 만에 이 업장을 통해 오고간 게임머니만 1억4000만 원 상당에 달했다.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게임장을 급습, 무등록 게임장에서 사행성 오락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이곳에서 게임기 50대와 입장료를 계산하는 키오스크 2대를 입수했다.

경찰은 A씨를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위·변조한 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